레닌의 기치 밑에

3 APR 11 1961

화살

1960년 4월 상반호 (123)

넓어진 활동 무대

사무 직장에서

생산 현장으로

송 용남 그림

국가 기관, 사무 기관들에서 일하는 수의 축산 및 농산 기술자들을 생산 현장에 진출시킬데 대한 최근 우리 당의 결정은 사회주의적 축산업과 농업을 새로운 기술적 토대 우에 올려 세움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절탄기의 《장기휴가》

삼년 석달전에 고참 탄광에 배치되여 온 최신식 《콜 캇다》 (절탄기)들은 건강한 몸인데 《장기 휴가》로 놀고 있기가 너무나 피로워서 어느날 밤 창고에서 자기들끼리 《비밀 모임》을 가지였다.

어떻게 하면 채탄장에 들어 가서 우리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수 있을가? …

한 절탄기는 품고 있던 《소감》을 말하기를

—우리가 이 탄광에서 《기술적 혁신》을 일으키자고 했지만 이 탄광 웃사람들이 우리하고는 전혀 외면하고 있으니 답답한 일입니다.

몸'집이 다부지게 생긴 한 절탄기는 그 말에 동정의 뜻을 표시하면서 자기가 채탄장에 들어가 목격하고 나온 《소감》을 토론했다.

—작년 9월달 나는 채탄장에 어쩌다가 《생산 실습》으로 들어 갔는데 글쎄 채탄장 관리가 어떻게 서툴렀던지 내가 전진하는 채탄면에 무거운 압력이 와서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바쁜소리를 쳤는데두 탄광 지도부에서는 내가 움직일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지 않고 나를 오히려 비난 하면서 나에게 《가동 불가능》이란 루명을 씌워 채탄장에서 내 쫓았지요.

이 말을 듣고 보매 짐작되는바 있었던지 몸'집이 다부진 절탄기가 《건설적》인 의견을 꺼냈다.

—우리들의 작업에 완전한 질서가 잡히자면 우리가 써야 할 전력 발란스가 잘 타산되고 변압기와 케—불선을 이 마구리 저 마구리로 망탕 돌리는 폐단이 근절되여야 하오.

그는 목에 핏대를 돋구면서 말을 계속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탄광 지도부에 정식 제기합시다.

—우리가 석탄의 채취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석탄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폭약은 최대한으로 절약하면서 로동 생산 능률을 몇곱절 올리겠으니 하루 속히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부대 조건을 갖추어 주고 우리를 채탄장에 진출시켜 줄 것을… 이 요구가 만약 실현된다면 우리는 이 탄광 로동자들에게 증산의 불꽃을 안겨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날밤 그들의 모임에서 종합된 의견은 반드시 지배인실에 들어 갔을 것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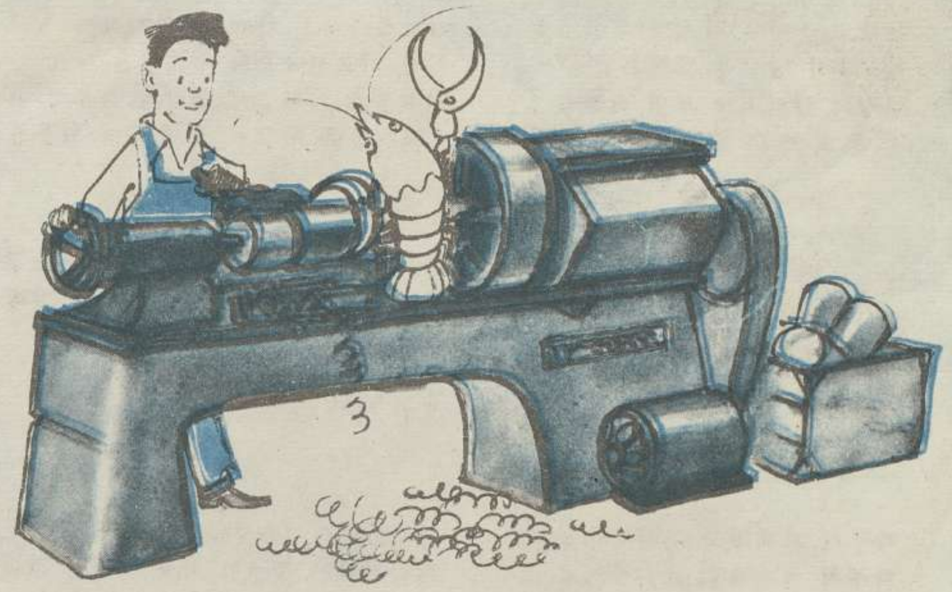
서 득창

주기적인 발작

조 명식 그림

가재의 방조라도 받을 수 있다면

흥남 비료 공장을 비롯한 일부 기업소 공무 직장들에는 파스 스파나등 공구를 갖추고 있지 못한 데로부터 작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



가재—파스가 없다고 걱정 마시요
내가 재 드리리다

최 영근 그림

어느 때까지나 이럴 셈인가?

청진 철도 관리국 운수, 화물 부문 책임 일'군들의 안일한 사업 작풍으로 말미 암아 화차 회기 일수 단축을 위한 기술 조직적 대책이 매우 굼뜨게 진행되고 있다

송 용남 그림

전화롱

량강도 수매 관리국 어르신네들
전화롱이 눈보다 낫다는구나?!
책상에 앉아서도 도내 실정은
손'금 보듯 꿰 뚫고 있다는구나?!

후창군은 자동차로 하루'길,
백암은 하늘 아래 첫 동리라.
이런데를 분주히 오르 내리기보다
전화롱이 수지 맞는다는 게지…

하부의 료해에도 전화롱이요.
하부의 지도에도 전화롱이요.
때론 검열에도 전화롱을 쓰나니
전화롱이면 《만사 해결》이라네.

사람들이여! 한번 가 보시라
이런 어르신네들의 사무실을.
전화롱은 어른들에 붙잡혀 몸부림 치고,
지도원들은 번잡한 통계 속에 파묻혔네.

잘도 생겼구나! 전화롱이 낳은 수매 계획서
아마 돼지, 닭알, 해바라기 그 밖에 ㄱ,
ㄴ, ㄷ, ㄹ…
인구와 면적으로 쪼개 놓았으니
모두 생산 실적보다 키가 크구나!

전화롱에서 《탄생》한 수매 계획서
거들거리며 뽐내며 하부로 내려 갔네.
《말이 없는 곳에서도 말총을 수매하라.》
병풍의 범을 잡으라는 격이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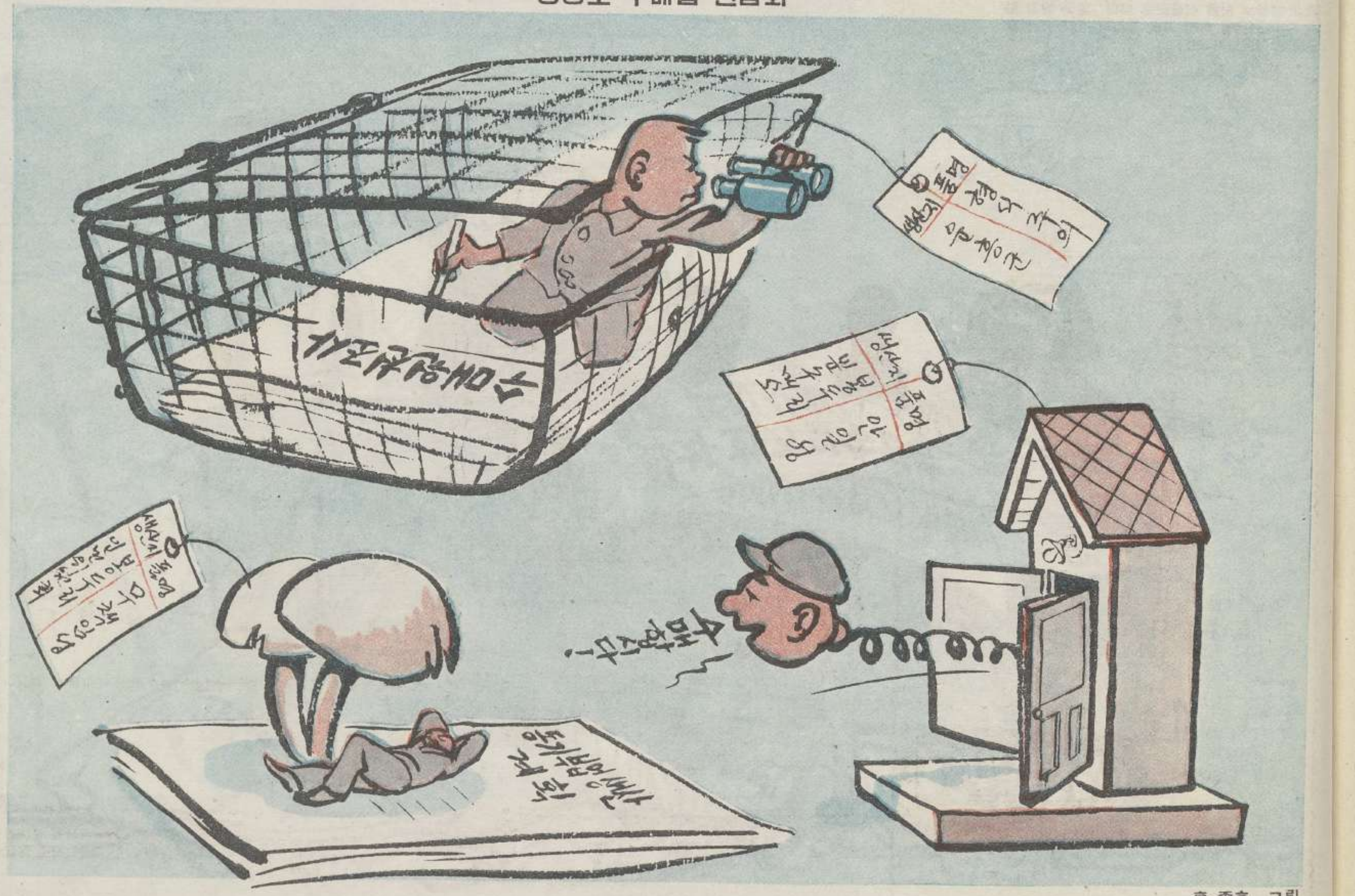
퓸퓸한 수매 부장 생각던 나머지
하루는 어르신네들에게 제기했다네.
하늘의 별을 따라는 격이지
《병풍의 범이야 잡을 수 있나요?》

그러면 또 전화롱에서 울리는 어른의
목소리
《계획은 법이요!
범 아니라 사자라도 잡으라면 잡아야 해!》
딱하구나! 덮어 놓고 집행하라니…

병풍의 범아! 어서 나오라
이런 못난 계획서
이런 어르신네들의 관료주의를
갈기갈기 찢어 불태워 버리라!

피 호주

량강도 수매품 전람회



홍 종호 그림

호랑이 방망이

자체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허 능택 그림

함경 남도 정평군 가축 병원 월'군들과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가축들의 수의 방역 사업에 무관심하다

문창리 농업 협동 조합 돼지들은 사료를 제때에 공급 받지 못하여 형편 없이 여위고 있다

우리 조합의 건달'군

최 영근 그림

한치의 땅도 람용하지 말아야 하겠는데…

허 능택 그림

함경 남도 정평군에서는 경지 면적을 최대한도로 리용할 대신에 옥토에 식료 공장, 직조 공장들을 건설하고 있다

대담하게 나왔다

홍 종호 그림

똘똘이와 삼녀

오 은텔

— 학습편 —

삼녀 너의 아버지두 그렇게 학습을 열성적으로 하시냐?

똘똘 그야 물론이지 우리 아버진 정치 경제학만 읽는다.

삼녀 정치 경제학?

똘똘 음 벌써 3년째나 매일과 같이 끼구 다닌단다.

삼녀 아주 열성적이구나

똘똘 말할게 있어!? 그 책 우뚜껑은 벌써 다 해져서 떨어진지가 언제라구

삼녀 음—너무 자꾸 봐서?

똘똘 그럼, 그런데 아마 그 책은 윈 첫 대목이 특히 재미나는 모양이더라

삼녀 왜?

똘똘 우리 아버지는 3년째나 그 책을 읽구 있는데 언제나 첫 대목만 뒤지고 있으니까.

삼녀 그 다음은 안 보시고?

똘똘 안 봐, 그래서 그 뒤는 아주 새것대루 그냥 있지 머

삼녀 그러구 보니 너의 아버진 매일 정상적으로 학습은 하지 않는 모양이로구나

똘똘 음 매일은 하지 않지만 그래두 날'자를 정해 놓고 하긴 해 매주 토요일날

삼녀 그 날이야 학습날 아냐?

똘똘 그러니까 그 날만은 꼭꼭 한단 말야

삼녀 그럼 학습날 이외는 안하냐

똘똘 학습날 이외에도 아주 열성적으로 할 때가 있어

삼녀 어떤 때?

똘똘 학습 총화 때

삼녀 음—학습 총화 때…그래 너의 아버지 학습 노트는 잘 정리해 두냐?

똘똘 하여튼 학습 노트를 얼마나 귀중히 보관하는지 모른다.

삼녀 어떻게 보관하는데?

똘똘 내가 늘 보관했다가 드리지

삼녀 네가?

똘똘 그럼, 우리 어머닌 나보다 책임성이 없다구 퇴짜를 맞았다.

삼녀 넌 아버지한테 아주 신용을 얻었구나

똘똘 그런데 나두 며칠선에 퇴짜를 맞았어

삼녀 왜?

똘똘 하루는 토요일두 아닌데 아버지가 불이낳게 집으루 달려 오시더니 〈내 학습장, 내 학습장, 내 학습장!〉 미처 정신을 못차리게 굴지 않겠어

삼녀 그래서?

똘똘 그래서 나두 얼떨떨해 섰다가 학습장을 내 올렸지

삼녀 너의 아버지 왜 갑자기 그랬을까?

똘똘 갑자기 학습 담화가 있었대

삼녀 음…그래서…그런데 네가 왜 퇴짜를 맞았냐?

똘똘 글쎄 내가 아버지께 드린 학습장이 아버지 것이 아니라 내 산수 노트였단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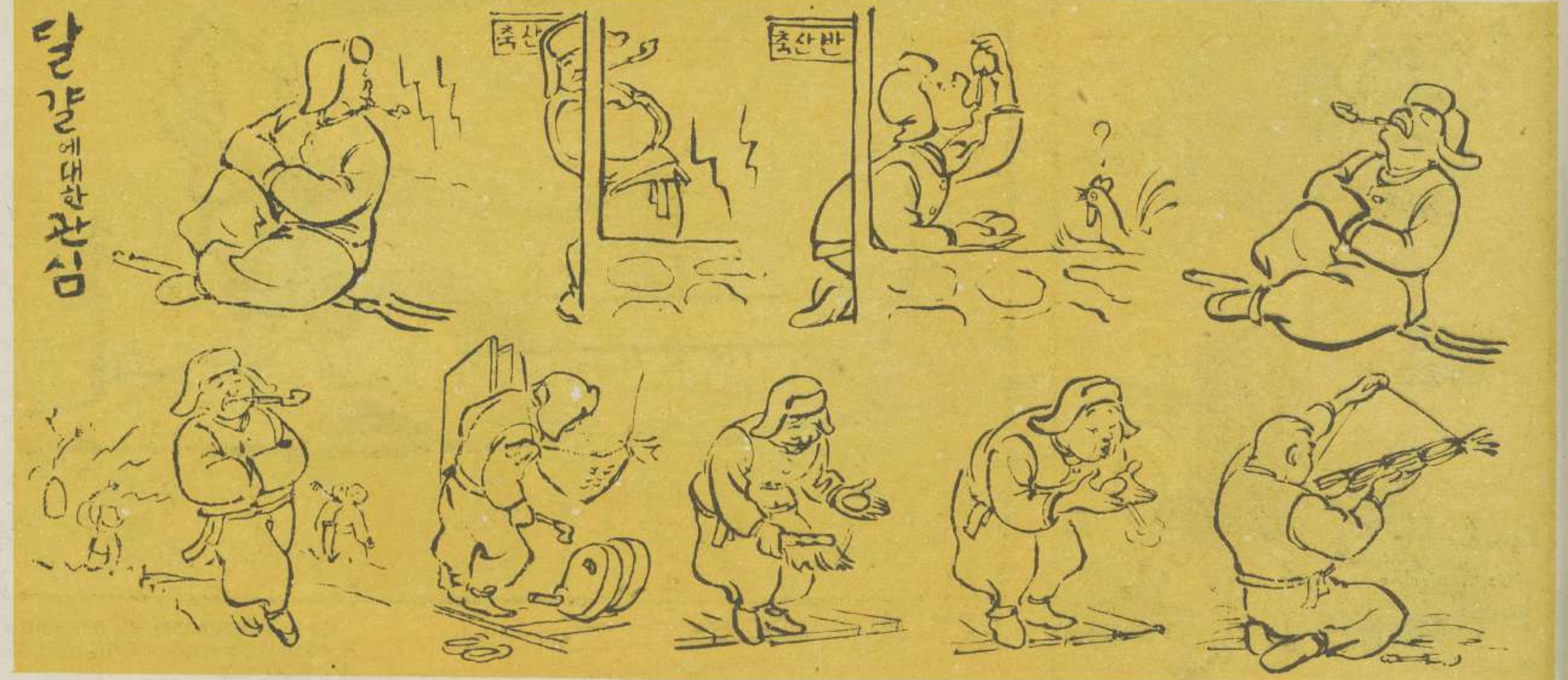
삼녀 머? 네 산수 노트야?
그래 어떻게 됐다면?

똘똘 어떻게 되긴 아주 진땀을 뺀 모양이더라
그래 나는 퇴짜를 맞구 우리 아버진 지배인으루 됐어!

삼녀 무슨 지배인?

똘똘 오리 목장 지배인!

삼녀 음… 2점 짜리 지배인?



홍 종호 그림

운흥읍 유치원에서

홍 종호 그림

철수야 가자! 나무에 맨 것이 더 나올거야

대장'간에 식칼이 없다

송 시엽 그림

지배인 동무, 합숙에 그릇이 없는데…
상점에도 없는데 낸들 어떻게 하겠소

정평 요업 공장 지도 일'군들은 공장 합숙에 식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구급 대책이 필요하다

조 명식 그림

무산 림산 사업소 일'군들은 역우들의 사양 관리를 잘 하지 않고 있으며 림철 기관차들에 대한 보수 정비를 제때에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림목들을 계획대로 수송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감투

박 태원

송장이 다 된 리 승만은 그래도 죽는-날까지《대통령 감투》를 안 놓겠다고 발버둥 쳤다(하나님의 뜻으로 저승에 가게 되드라도 어찌《대통령 감투》를 놔 두고 맨대가리로 갈 수야 있으랴!).

그는 네번째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가리지 말라고 졸개들을 내몰았다.

《선거표를 긁어 모아라! 위협도 하고 매수도 해서 모든 표가 나를 위해 바쳐져야 한다. 안 듣거든 족쳐라!

그래도 안심치 않으니 유령표도 든든히 장만하고 무더기표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세세히 대 주는 비밀 지령을 남조선 방방곡곡에 널려 있는 졸개들에게 띄워 놓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만약 이 비밀 지시를 실천하는데 있어 성적이 나쁜 놈은 목을 벨 것이니 명심해서 하라》고 덧붙쳤다.

1. 조반

3월 15일, 리 승만이 몇달전부터 특별 식사하기로 작정해 놓은 날이다.

동녘 하늘이 밝기도 전에 리 승만은 식탁 앞에 앉아 료리가 들어 오기만 기다린다. 무엇이든 닥치는대로 움켜 잡을 듯이 두 팔을 거들거리며 목구멍을 치미는 시장'기를 참지 못해 늘어진 주둥이로는 게걸침이 흘러 내리고 있다.

밖은 아직도 캄캄한데 리 승만의 새벽 식사가 시작됐다.

게걸 만난 리 승만은《선거표》를 무더기로 처먹는다.

1천 1백여만 표의 3분의 1은 먹어 놔야 안심할 판이라 결눈도 팔지 않고 두 손을 번갈아 목구멍이 미여져라고 처 넣는다.

채 씹지도 않고 삼키느라고.

2. 점심

어지간히 쓸어 넣었으니 제 짐작으로도 3분의 1은 넘겠다고 생각되였으나 리 승만은 2분의 1은 먹어 놔야 안심할 것 같애 점심도 계속《선거표》료리를 처 먹는다.

박 승히 그림

리 승만은 등이 달아 졸개들에게 소리를 지른다.

《아이구, 이놈들아, 내가 이렇게 천신만고를 겪고 있는데 너희들은 구경만 하느냐, 하놈들 두고 보자. 아이구 아아…》

3. 저녁

리 승만이나 그 졸개들이나 처 넣는데만 눈알이 뒤집혀서 뺑뺑해진 리 승만의 배'가죽이 여기 저기서 터지는걸 몰랐다.

《아이쿠 배야! 아이쿠 배야. 이놈들아 나 죽는다. 아이쿠…》

부산, 포항, 진주, 대구, 례천, 군산…사방에서 아우성 소리, 우지끈 뚝딱 들부수는 소리에 귀가 멍멍해지는 판국인데 광주에서는《민주주의 장례식》을 한다고 곡성이 들려 오는가 하면 마산에서는 리 승만의 살인적 폭압〈선거〉를 규탄 배격하는 수천 군중들의 폭동에 의하여《경찰 파출소》가 불타 버리고《자유당》청사니 서울 신문사 지국이 마사지고…

사태는 바로 턱 아래 서울 한복판에서도 아우성 소리와 함께 시위가 벌어지는 판이다.

《아이쿠, 이놈들아 날 살려라 아이쿠—》

졸개들이 똥줄이 타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보건 장관》이란게 약병을 들고 급히 뛰여 든다.

《각하님, 진정하십시요. 이 약을 마시면 곧 났습니다》

《무어냐 그게…》

《설사약이죠. 헤헤…》

《아이구 이 미련한 놈아, 그래 기를 쓰고 먹은 것을 그대로 내 보내면 어쩐단 말이냐! 이 역적 같으니…》

《아아닙죠…저야 각하님 몸을 위해서 일편 단심으로…그럼 구토약으로…… 》

《에끼 이 빌어먹을 놈아, 그래 거꾸로 다 토해 버린단 말이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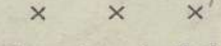
《내무 장관》이란 놈이 밀치고 나섰다.

《각하! 저에게 분부를 하십쇼》

《으음! 수술을 해라, 아래로 흘러 나가지도, 우로 토하지도 않게 하구 터진 데를 꿰매라! 어서 이놈들아…》

최루탄을 던지고 곤봉으로 치고 때리고 닥치는 대로 잡아 가두며 총탄을 퍼부어 남녀 학생이건 구두딱기 소년이건 네살짜리 젖먹이건 쏘아 죽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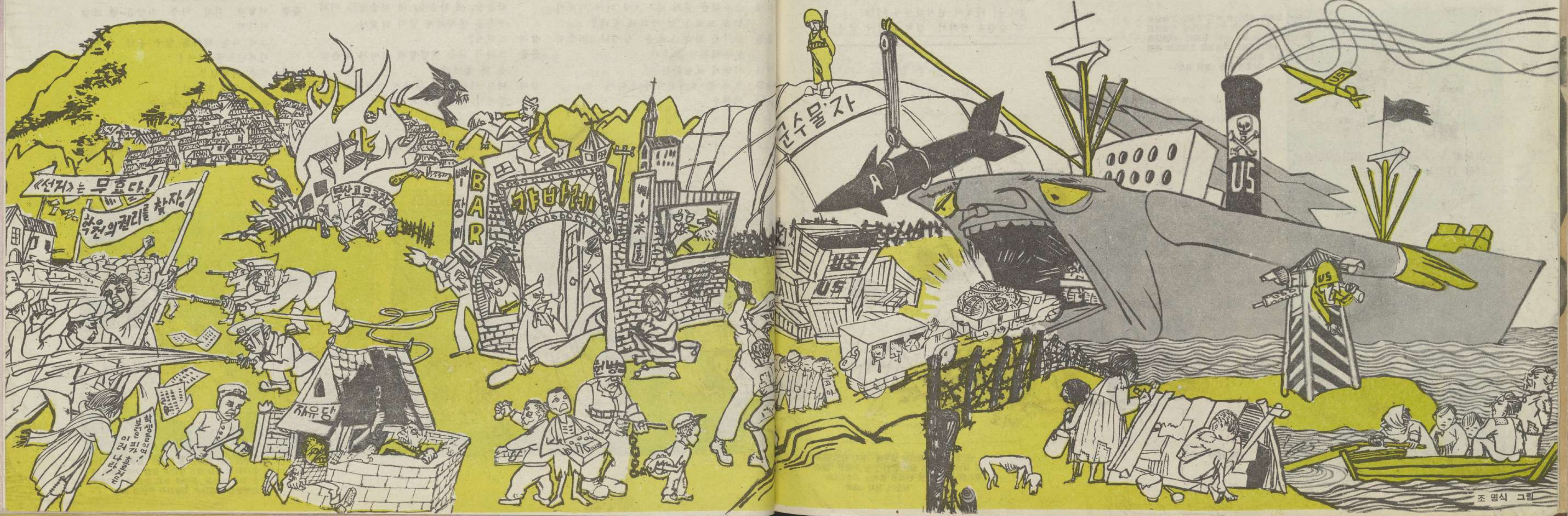
× × ×



사지를 늘어 뜨리고 온 몸에 경련 일으켜 숨 넘어 갈듯하는 중에도 리 승만이가 백성들의 소동이 더 퍼지기 전에 어서 발표하라고 서두는 바람에《선거 위원장》은 88.7%로 리 승만이《당선》되였다고 떠들어 댔다.

그러나 어이하랴,《대통령 감투》를 움켜 쥔채 사지를 뻐치고 있는 리 승만은 만신창이가 되여 꿍꿍거리는데 온 몸둥아리에서는 썩은 내가 코를 찌르니…

부산 에서



조 명식 그림

남조선 출판물에 쓴 리 승만 통치에 대한 불만

《애국자들의 유가족들이》 걸식을 하게 되고 이 애국자들을 박해하던 일제의 충복들이 활보하는 세상일진대 여기에서 애국과 도의를 찾는 것은 가시 덤불속에서 무화과를 찾는 것과 같은 일이다》

(남조선 잡지 《사상계》)

《현 집권자는 협잡과 강권으로 국민을 제압하며 정권을 유지해 보려고……자기의 개인 리익에만 현혹되여 갖은 정상배, 갖은 불량배를 품에 안고 국민과 등지며 불법, 무법, 횡포를 일삼고 있다》

(남조선 잡지 《사상계》)

송 시엽 그림

최 영근 그림

《서민 일반의 생활난을 서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일종의 정치적 불가항력으로 인정하고 민생고를 〈세계적 통례〉라는 등등의 궤변으로 롱한다는 것은 당국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송 용남 그림

《민족 전체의 복리를 념두에 두지 않고 민족의 앞날을 생각지 않는 마치 오합 지중과 같은 무리들—이야 말로 민족을 좀먹는 곤충이다》

(남조선 잡지 《새벽》)

송곳방석에 앉은 리승만

조 병조

《각하! 이것이 각하께서 가져 오시라던 신문, 잡지, 소책들이 옵삽네다》

괴뢰 공보 실장 전 성천은 리 승만이가 시키는 대로 그들의 소위 《동맹국》 출판물들을 한아름이나 안아다가 그의 앞에 조심조심 갖다 바쳤다.

급작스럽게 리 승만이가 이같은 출판물들을 가져 오라고 요구하게 된 것은 어떤 반가운 소식이라도 들어 보기 위해서였다.

《그래 우리 남한에 대해서 무어라구들 썼는지 빨리 하나하나 읽어 보아라》

《네네! 이것은 방금 미국에서 온 워싱톤 포스트지 옵사온데…》하며 읽었다. 《…리 승만은 포악한 독재자…》

《무무엇! 내가 포악한 독재자라구》

《그렇습네다 〈여든 다섯살이나 처먹은 리 승만은 이번 선거에서도 억지다짐으로 이겨 내기 위해 무장한 경찰은 물론 군대까지 끌어 증오스러운 란폭한 행위를 감행하였다… 리 승만의 이러한 짓 때문에 미국은 난처한 처지에 빠지게 되였다〉라고 씌여있삽네다…》

《아니! 미국이 난처해졌다구?!》

리 승만은 갑자기 경련이 일어 났다. 미국의 총검 밑에서만 겨우 여명을 이어 가는 판에 그 상전의 비위를 거슬리게 했다는 이 사실이 그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불안스러웠다.

《그러나 잘못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야! 공보 실장! 자네도 아는 터이지만 지난해 야당과 국회 의원들을 의사당 지하실에 가두어 넣고 보안법을 강제로 통과시키게 한 것도 누군가 말이다》

《옳습네다! 그게 다 미국 어른들이 시킨 겁죠》

《사실 내가 포악한 사람이 된 것도 다 내 잘못은 아니야》

《그렇습죠!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은 미국 외교 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옵사온데 여기에는 〈남조선 백성들 속에서 리 승만이에 대한 반항과 불안이 젊은 세대는 물론 구세대의 상당한 부문과 그리고 군부에까지 미치고 있으며 그것은 폭발적인 것으로 될른지 알 수 없다〉고 써 있습네다…》

《무무엇이! 백성들 속에서…폭발한다고? 아니다, 아니야 그것은 잘 모르는 소리다. 우리 백성은 나를 믿고 있단 말이다》

쑥새골 같은 대가리를 내 저으면서 이렇게 울부 짖는 리 승만의 입에서는 거품이 끓어 올랐다.

《각하! 죄송합니다. 그럼 읽는 것을 이만하면 어떻삽네까?》

《아니다, 아니다. 더 읽으라 그 많은 신문, 잡지에 나를 욕하는 글만 있겠느냐, 칭찬한 것도 있을테니 어서 읽으라!》

《알아 들었습네다. 각하, 이것은 인도 신문 "타임스 오브인디야"에 실린 글인데 〈죽엄의 땅, 죽어 가는 땅—이것이 간단히 말하면 리 승만의 남조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구 일본 잡지 "쥬오고론"은 남조선의 〈전 백성의 3분의 1이 지스토마 환자이며…폐결핵 환자는 120만명…류행성 풍토병은 100만명 이상, 아동 사망률은 1,000명중 220명…거의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수'자들〉이라고 하였습네다. 이 출판물들은 우리 남한을 〈지옥〉이라고 하면서 바로 이러한 사실들로 하여 남한 백성들이 우리를 반대하여 나서고 있다고 하였습네다…》

《에잇! 망할 것들아! 그래 어떻게 돼서 그러한 재료들이 바깥까지 새여 나가게 만들었는가!?》

《각하! 죄송합네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막아 내지 못한 것도 잘못이 있겠삽지만 사실인즉 외국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비르마 신문 "랑궁데일리"지에서는 〈리 승만은 워싱톤의 어떠한 지령이라도 집행할 용의를 가진 미국의 앞잡이다〉라고 하였습네다…》

《이놈아! 그래 네놈이 지금까지 읽은 것들이 다 빨갱이 출판물들이 아니냐?》

《각하! 아닙네다. 보시다 싶이 분명히 우리 자유 세계의 벗들이 쓴 글이 옵삽네다…》

《아이구! 망했구나, 망했어…》

한없는 공포와 불안에 싸인 리 승만의 쪼그라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 내렸다.

《오! 자애로운 하나님이시여! 이 승만을 보살펴 주옵소서…》

《경무대》 밖에서는 리 승만의 기도에 대답하듯 까마귀들이 왁 덮이우며 요란스럽게 짖어 댔다.

자본주의 출판물이 본 리 승만 괴뢰 정권

《앞날을 가지고 있지 못한 리 승만 통치에 대하여 말할 가치 조차 없다》

(뽈란서 신문 《피카로》)

《남조선의 리 승만 보다는 차라리 흑사병이 더 나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신문 《타임스 오브 인도네시아》)

백 인균 그림

《남조선은 지금 가장 엄중한 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미국 전초 기지의 하나로 되고 있다》

(캄보쟈 신문 《통일보》)

깨여진 꿈

오 흥택

하역 회사 사장 김 동주는 해정잔을 들면서 회죽이 웃었다. 어제'밤의 교섭이 의외에도 순조롭게 진행된 것이 지금 생각해 봐도 더 없이 만족하였던 것이다.

《뭘 그렇게 혼자 웃어요?》

기생첩이 술 주전자를 기우리면서 묻는 말이다.

《요것만 먹이면 안 녹아 나는 놈이 없거던》 김 동주는 술'잔을 들면서 뇌까렸다.

《로조 위원장이란 박씨 말이예요?》

《아 글쎄 그놈이 뭐요 뭐요

하면서 떠들어 대더니 술'상 머리에 앉혀 놓으니깐,… 허허 참 그저 돈과 술이면 다야》

기생의 물음에 김 동주는 이렇게 종알대면서 껄껄 거렸다.

《아무렴, 내 수안에 안넘어 가는 놈이 있나요》 기생은 기생대로 제 자랑을 늘어 놓았다.

× ×

어제'밤에 있은 일이다.

인천 하역 회사 사장 김 동주는 최근 로동자들의 기세가 더욱 험악해짐에 불안을 느껴 《대한 로총》 산하 인천 부두 로조 위원장》이란 작자를 술자리에 청했다.

《아, 글쎄 이런 불경기 판인데 로동자들이란건 임금만 인상해 달라구 허니 업자들의 립장두 좀 생각해야죠》.

사장은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다 안'속이 따로 있는거죠》

《로조 위원장》이란 자는 이렇게 간단히 대답할 뿐이였다.

사장은 《흠 이놈이 뭘 좀 냄새를 맡았는가》 하고 생각해 봤으나 미군측과 단 둘이서 비밀 계약을 체결한 노릇이니 알 리 없을거라고 시침을 떼고 말았다.

이번 물'자는 면목상 군수품으로 되여 있지만 사실은 미국인 밀무역 업자가 미군 부대를 등에 업고 하는 장사기 때문에 말썽을 피하기 위하여 하루'밤 사이에 짐을 부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역료도 곱이나 많은 반면에 약속을 어기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총 재산을 털어 바쳐야 한다는 것이였다. 로동자들을 하루'밤만 몰아 세우면 돈더미 우에 올라 앉기 마련이다. 그런데 최근 로동자들의 동태는 험악했다. 《밀린 임금을 즉시 지불하라!》 《임금을 인상하라!》 《단체 계약을 체결하라!》 이런 삐라들이 부두'가와 하역 회사 사무실 벽들에 종종 붙군 하였다.

《로조 위원장》이란 작자를 삶아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위원장님 한잔 쭉 드시요. 한국 전체가 불경기 판이 돼서 하역 업자두 요새는 손에 들어 오는게 있어야죠》

사장은 다시 한번 기미를 떠 보노라고 이렇게 말을 걸었다.

《그렇지만 거 다 있지 않소》

《로조 위원장》은 이렇게 대답하고 술'잔을 돌렸다. 사장은

《흠 이놈두 먹자는 게로구나》 생각하면서 속으로 돈 계산을 해 보았다. 《10만환? 15만환? 이런놈은 10만환이면 파남할거야》

사장은 이렇게 단정하고 즉석에서 수표를 떼였다.

그제야 《로조 위원장》두 마음을 풀면서 술자리가 활기를 띠게 되였다.

《래일 저녁에는 전체 로동자를 동원해서 돌격 작업을 조직할'것》

두 사람은 이렇게 약속했던 것이다.

× ×

사장은 하루 종일 기생첩 궁둥이에 붙어 있다가 저녁 때가 되여 부두'가로 어슬렁거리며 나왔다.

로동자들이 이곳 저곳에 몰켜 서고 있었다. 사무실 안은 부산한 공기가 떠돌고 있었다.

김 동주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4~5명의 로동자가 들어 왔다.

《사장, 당신이 우리 로동자의 요구를 아직 듣지 않았으니 오늘부터 파업이요》

한 로동자가 내 밸 듯이 하는 말이다.

《뭐 뭐. 파업이라구, 당신네 로조 위원장 보구 약속이 다 됐는데…》

《그런 강제 로동 조합허구는 우리와 아무 상판도 없소. 초록은 동색이라구 당신이나 그놈이나 같은 것이요》

로동자들의 태도는 강경했다.

《아니 오늘 밤만 일해 주면 래일 해결할테니…》

사장은 미국 밀무역자와의 약속 때문에 애결하다 싶이 웨쳤다.

《홍 래일 래일이 몇백번 되풀이 되는거요》

이때 창 밖에서 로동자들의 시위 행렬이 지나 갔다. 《임금을 인상하라!》

《8시간 로동제를 실시하라!》 로동자들의 웨침이 우렁차게 울려 왔다.

탁상 전화 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수화기를 든 사장은 당황한 빛을 감추지 못했다.

미국 밀무역자 부라운이였다. 빨리 짐을 부리라는 독촉이였다. 약속을 어기면 미군 헌병을 불러 문초하겠다고 울러 메고 있었다.

로동자 대렬이 사무실을 둘러 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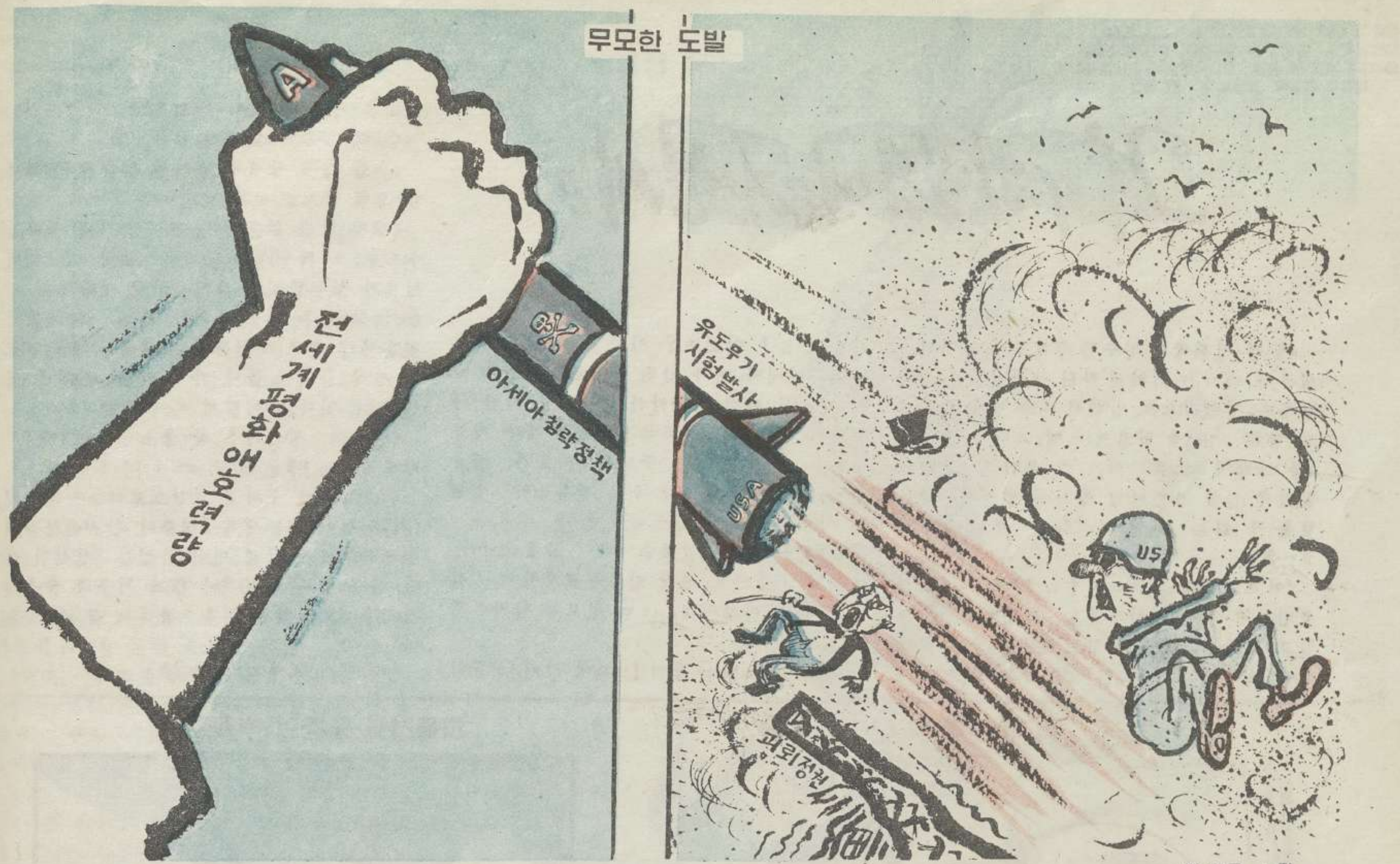
6개월간이나 밀린 로임을 즉시 지불하라고 웨치며.

낯가죽이 두텁다

유엔 극동 경제 위원회에 제출한다는 리 승만의 <경제 백서>에서는 미제 <원조>의 덕택으로 파탄 몰락하고 있는 남조선 경제를 마치도 <점차 안정기에 들어선 듯이> 묘사하며 <자립 경제 체계를 이룩할 수 있는 전망>이나 있는 듯이 장황하게 늘어 놓았다

박 승히 그림

무모한 도발



백 인균 그림

미제 침략자들은 지난 2월 26일 경기도 오산지구에서 도발적인 《마타도르》 유도탄 시험 발사를 감행하였다

조선 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도발적인 불장난에 격분을 금할 수 없으며 그를 조선과 극동의 평화에 대한 엄중한 파괴 행위로서 단호히 규탄한다

소가 웃다 꾸러미가 터질 노릇

백 인균 그림

남조선의 전라 남도 담양군 괴뢰 교육 구청에서는 농민들의 소 한마리에 최하 6백환으로부터 최고 2천환까지의 《교육세》를 꼬박 꼬박 받아 내고 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만행은 날로 우심해 가고 있다. 미제 8군 소속 야수들은 최근 경상 북도 왜관에서 남조선 주민들에게 집단 폭행을 감행하였다

미제 승냥이들을 몰아 내자!

박 승히 그림

그후의 라틴아메리카《정세》

로 철

《중앙 정보국이 입수한 정보들에 의하면… 대통령 각하! 각하의 라틴 아메리카《친선》 방문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매우 매우 좋았다고 결론 지을 수 있으며… 예, 그리고 저…그 (흠 그렇지 그래) 저, 그 문학적 표현을 빌려서 말씀 드린다면 청사에 영원히 남을 잊을 수 없는 인상의 씨앗을 뿌려 놓았다고…》

《여보, 알렌 덜레스씨! 구태여 문학적 표현까지 빌리지 않더라도 그만쯤은 나도 알고 있소! 에익, 제길할…내가 중앙 정보국에 요구한 것은 그따위 문학적 표현이 아니란 말요! 알겠소? 지금 전 세계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내가 받은 봉변을 비웃고 있지 않소? 이것을 반박하려면 그후 라틴 아메리카 정세가 소문과는 달라서 매우 매우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단 말요! 말하자면 우리 간첩들이 수집한 아주 생동적이고 구체적인…》

《아하,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진작 말씀하실게지…. 각하! 념려 마십시요, 그런 정보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예》

《그렇소? 됐소 됐어! 그래 어떤 것들이 있소? 어서 좀 보여 주오!》

《어떤 것부터 보여 드릴까요?》

《우선 정치 정세에 관련한 것부터 골라서 좀 보여 주오》

《정치 정세 부문이라…예, 여기에 부라질 수도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보내 온 극비 전보가 있는뎁쇼.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방문이 있은 후 이곳 정치 정세는 전례 없이 평온하며 시내 도처에서 미국에 대한 친선의 정이 급격히 높아 가고 있는 사실을 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씌여 있고…》

《친선의 정이라! 참 좋소 좋와! 어서 계속하시요!》

《그에 대한 구체적 표현으로서는…에…에 〈지금 관리들이 새벽 5시부터 밤 9시경까지 총동원되여 미국에 대한 극진한 친선의 정을 품고 벌써 열흘째나 뼁끼 지우기 운동에 침식을 잃고 있는 것을 실례로 들 수 있는 바〉……》

《뭐, 뼁끼 지우기 운동?》

《예…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시내 담벽 마다에는 뼁끼로 〈아이젠하워는 물러 가라!〉고 쓴 구호가 무수히…》

《닥치시오! 아니, 그게 그게 그 극진한 친선의 정에 대한 표현이란 말요, 앙?》

《그러나 각하! 이건 제가 꾸며 낸게 아니라 슬하의 간첩들이 이실 고실…》

《그놈들이 모두 정치에는 깡통 같은 놈들이란 말요! 벌써 열흘째나 침식을 잃고 있다고? 빌어먹을 자식들 같으니》

《각하! 진정하십시오. 여기에 좋은 소식들이 있는 뎁쇼!》

《듣기 싫소! 또 그 따위 정치 정세에 대한 것들이겠지?》

《아니옵니다. 이건 아마 정치가 아니라 경제 정세에 관한 것 같사옵니다》

《경제 정세? 그거 좋소! 이번 려행 때 많은 원조를 약속했으니까 필시 좋은 소식이겠지…어데 읽어 보오.》

《이건 아르젠틴에서 온 전보인뎁쇼…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방문이 있은 후 시정은 안정되고 특히 통조림 값이 싸지고 있으며〉…》

《흠, 나쁘지 않는 소식이야, 또?》

《다음 칠리의 산챠고에서 온 전보에는… 에…〈사과, 빠나나, 귤 등 과실 값이 계속 내려 가고 있다〉고 했고…》

《흠…다 내려만 간다는 소식 뿐이요?》

《예, 이건 우루과이 수도 몬데비데오에서 온 전보인데…에…〈이곳에서는 특히 닭알 값이 폭락되고 있는바…〉》

《여보, 알렌 덜레스씨! 왜 모두 내려만 가고 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해 봤소?》

《예, 여기 몬데비데오의 전보에 밝혀 있는 것 같은데 다 내려 읽어 볼가요?》

《어서 읽소!》

《…에…〈본관은 어느 한 농민을 붙잡고 ”왜 닭알 값이 내려 가는가?„ 하고 탐문한즉 ”념려 마시오! 당신네 아이젠하워가 다시 우리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그때에는 또 올라 갈테니„ 하고 대답하기에…〉》

《뭐, 나와 닭알과 어떤 관계가 있단 말요, 앙?》

《…에…〈본관은”우리 대통령과 닭알과 무슨 관련이 있소?”라고 다우쳐 물은즉 “여보 미국 나으리, 전번에 아이젠하워가 찾아 왔을 때 우리 시민들이 그놈 대가리에 닭알, 사과 통조림, 빠나나 껍질을 던지려고 앞을 다투어 사가는 걸 보지 못했소„라고 대답하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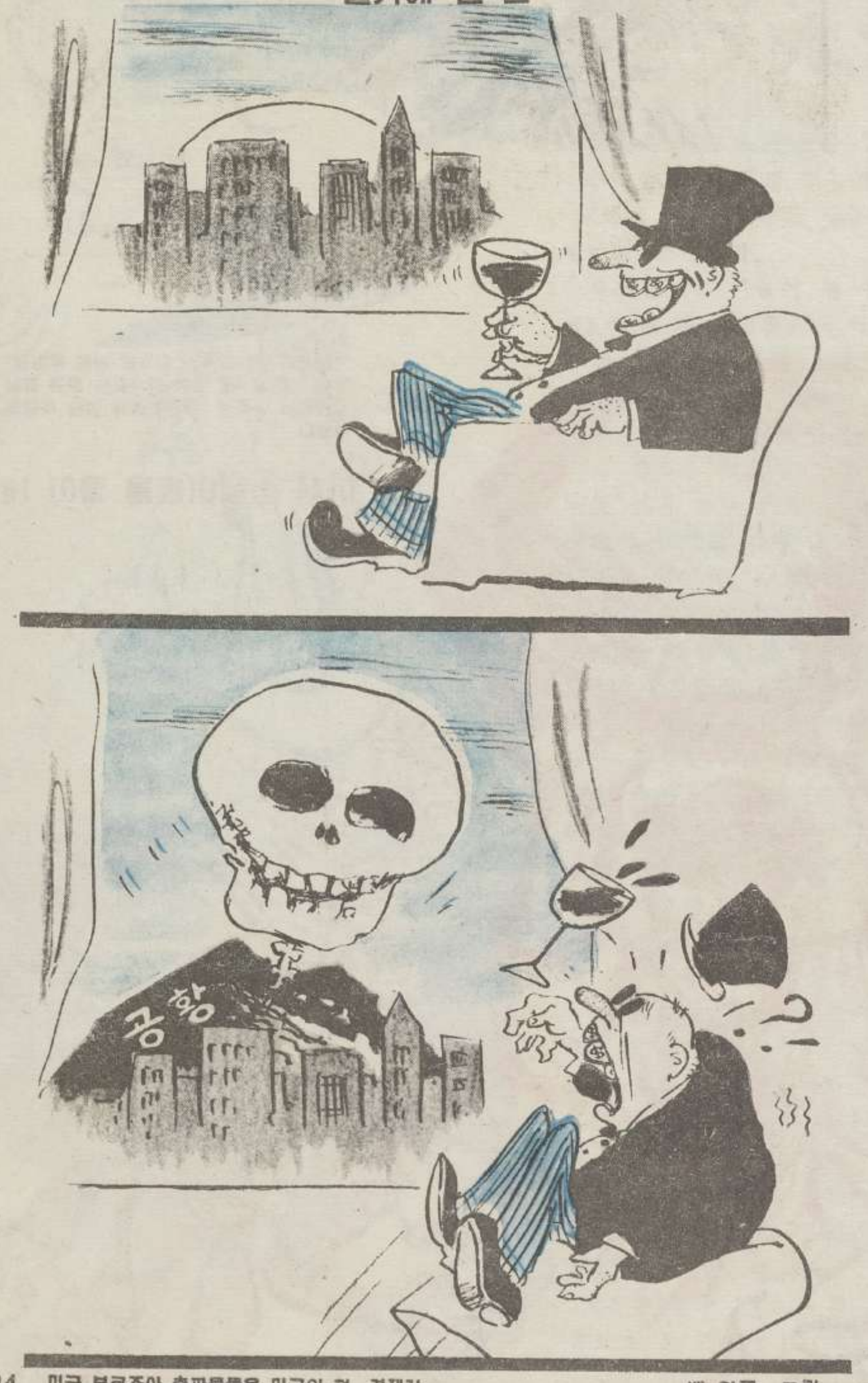
《뭐, 뭐, 무엇이 어쨌다고?》

《…에…그러므로 〈본관은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 정세, 특히 소매 물'가의 급격한 변동이 우리 정부 고관들의 친선 방문과 가장 밀접히 관련되여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쓰고 있구만요》

《으흐흐…》

하고 아이젠하워는 금시 닭알, 통조림, 과실 껍질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대머리를 움켜 쥐고 움츠려 버렸다.

월가에 뜬 달



미국 부르죠아 출판물들은 미국의 현 경제가 공황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사실은 이미 감출 수 없게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백 인균 그림

히틀러와 도죠의 후계자들

기시—먼 길을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아데나우어—히틀러가 간 길이라면 더 먼 길이라도 가지요

홍 종호 그림

위험한 《곡예》

나토군 최고 사령관 노스태드는 국제 정세를 복잡하게 만들 목적으로 1년 내에 서구라파에 핵 무기로 장비된 《나토 련합 핵 기동 부대》를 조직할 것이라고 도발적인 발언을 하였다

송 용남 그림

아이젠하워의 남미 방문

최 영근 그림

편집 위원회
발행소 국립 미술 출판사 ㄱ—15356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행 1960. 4. 10 (값 40전)

대답하라!

8034
Хвальсаль

ПЭК 8
ул. Чайковского
г. 19/21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осольству
10 1-12 №8034

허 능택 그림

지난 3월 15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린 동서방 10개국 군비 축소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미제를 비롯한 서부 렬강이 발광적인 《랭전》 정책과 군비 경쟁을 버리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